

즐길 것인가, 참을 것인가

- 즐기면서 낭비한 시간은 낭비한 것이 아니다

이숙영 자기계발클리닉 대표



“무릇 인간은 자신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법이다. 세상도 생각해야 하고 국가도 생각해야 하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 하지 않는다면 마음이 편치 않을게다. 너 역시 그렇게 빈둥거리면서 지내는 게 좋을 리가 없잖느냐.(……)”, “서른이나 되어서 한량처럼 빈둥빈둥 놀고 있는 것은 정말이지 볼썽사납구나.(……)”나쓰메 소세키의 소설『그 후』의 주인공 다이스케가 아버지에게 설교를 듣는 장면이다. 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아버지의 말들은 언뜻 보면 이타적인 삶을 장려하는 것 같다. 하지만 결국은 남 보기에 ‘볼썽사납다’는 체면의 문제로 귀결된다. 다이스케가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일을 하면 자신의 무언가가 더러워진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교해볼 때 아버지의 가치관은 피상적이고 세속적으로 여겨진다. 우리 주변에는 다이스케 아버지 같은 어른들이 꽤나 많아 보인다. 딸에게 결혼을 권유하는 엄마의 경우를 살펴보자. 엄마는 딸에게 살이 찌도 안 되고, 너무 빠져도 안 된다고 말한다. 헤어스타일 간섭은 예사이고, 옷은 어떻게 입어도 못마땅해 하며 성형수술을 권하는 엄마도 있다. 모두 다 ‘너를 위해서’라고 말들은 하지만 사실은 가

족이나 친구, 주변 지인들에게 내 딸이 어떻게 비쳐질지에 더 관심이 많다. 특히 엄마들의 ‘네가 뭐가 부족해 결혼을 못하느냐’의 속내는 딸이 외롭게 살까봐 걱정해서라기보다는 본인이 잘못 키운 것 같아서, 엄마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남들에게 체면이 안서고 그들로부터의 오해가 견딜 수 없는 것이다. 중요한 건 이쯤 되면 부모님의 속내를 자식들도 본능적으로 안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고인이 된 마광수 교수는 ‘야(野)해져야 행복해진다’라며 야한 정신을 설파했다. 그가 말하는 야함이란 사전에 나오는 천박함의 의미보다는 자신의 본성에 솔직하고 이중성이 없는 야(野)인 정신을 의미한다. 즉 ‘과거보다는 현재에’, ‘도덕보다는 본능에’, ‘절제보다는 쾌락에’, ‘전체보다는 개인에’, ‘질서보다는 자유에’ 가치를 더 매기는 정신이다. 인간은 잠재의식(이드=쾌락욕구)과 표면의식(초자아=양심)을 일치시키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함을 느낀다. 잠재의식인 이드는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려 한다. 이드는 인생의 만족감의 원천이며 정신에너지의 샘으로써, 이드가 과도하게 억압당하면 기쁨이 없고 무기력한 사람이 된다. 필요에 따라

서 공격할 수도 있고, 자기주장을 펼칠 수 있는 것은 이드의 도움이 있기에 가능하다. 반면, 표면의식인 초자아는 겸열적 자아로 자신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도덕적 행동을 요구하며 죄의식을 심어준다. 마치 훈계와 비난을 일삼는 부모가 마음속에 내재화되어 있는 셈이다. 가혹한 초자아는 인간을 자학적으로 만들어 모든 면에서 자신의 부족을 느끼게 하고 자책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마치 ‘행복해지는 건 죄악’이라고 가르쳐 주는 듯하다. 물론 이드와 초자아 둘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기 위해 자아의 중재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잠재의식과 표면의식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열정과 삶의 에너지가 생긴다는 사실이다. 이때, 비로소 우리의 몸은 활기 넘치고 살맛나는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는 ‘욕망’이라 하면 늘 한 가지 면만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성 욕망’. 하지만 욕망은 생명의 원천으로 생명이 힘을 발휘하면서 행동으로 이어지기 전까지의 일체의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살고자 하는 것도 욕망이고, 알고자 하는 것도 욕망이고, 행동을 하고자 하는 것도 욕망이다. 분명한 것은, 인생을 인생답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저 자연적 생명만을 유지하면 된다거나 무조건 참는 방식의 삶은 아닌 듯하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주어진 욕망을 어떻게 다스리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상을 해보자.

A와 B 두 사람은 근사한 파티에 초대를 받았다. 그 파티에는 매력적인 대화도 있고 오래 숙성된 술도 있다. 두 사람은 두 가지 모두에 흥미가 있었지만, A는 종교를 통해 술을 마시는 행위는 죄악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술은 마시지 않고 대화만 나누었다. B는 술을 마시는 것보다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즐겁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 선택의 결과는 동일하지만 둘의 만족도나 행복감은 다를 수 있다. 더 큰 쾌락을 위해 작은 쾌락을 단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보다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즉 인간이 누리는 행복은 쾌락을 절제하는 금욕을 통해서가 아니라 행복해지는 일을 통해서 쾌락을 절제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근면하고 금욕적인 자세를 미덕으로 삼는 자기학대적인 풍토가 뿐리 깊게 남아 있다. 이 미덕은 가난하고 짚주렸던 시절의 사람들이 살아남는 데는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지만 지금의 현실에서는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즐길 것인가, 참을 것인가, 당연히 즐겨야 한다. 그런데 왜 우리는 즐기는 삶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일까.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능력이 안 되어서 등등 즐기지 못하는 이유들을 수없이 많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즐기지 못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지금 즐기다 보면 나중에 즐길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지금 즐기지 않고 참으면 나중에 더 많이 더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문득 이솝우화에 나오는 〈개미와 베짱이〉가 떠오른다. 근면과 인내가 미덕인 사회에서는 미래를 대비해 저축하는 자세를 바람직하게 여기는 경향이 강했지만 지금은 ‘베짱이의 노래가 필요해’, ‘거꾸로 읽는 개미와 베짱이’식의 반전동화들이 새롭게 씌여지고 있다. 이러한 책들은 미래의 행복만을 바라며 현재를 희생하는 개미보다는 순간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즐기는 베짱이의 삶을 다른 관점으로 보여준다.

‘당신은 열심히 일하며 미래의 어려움에 대비하는 개미과에 속하나요? 아니면, 현재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지금을 즐기는 베짱이과에 속하나요?’ 